



안전은 물론 바람직한 노사문화 선도할 것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이 지난 8월 14일 협회 노동조합 '2012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 대회'에 참석, 노·사의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진규 회장은 "노사 간 굳건한 신뢰가 있어 협회가 '48년 역사'라는 금자탑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협회를 국내 최고의 종합안전컨설팅기관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가 열린 소통으로 서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협회가 안전은 물론 바람직한 노사문화도 선도하는 직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서부지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방문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 서부지회(지회장 박정규)가 관내 안전관계자들과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인 서울우유저장공장을 방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우유저장공장의 공장내부 정리정돈 상태 및 안전활동 등을 벤치마킹하는 자리였다. 경남서부지회의 한 관계자는 "식료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견학을 계기로 기초안전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회, 안전보건캠페인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지회장 이재현)는 지난 7월 31일 현대백화점 무역점 직원출입구 앞에서 '안전보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동부지회 직원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원청 및 협력사의 관리감독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원청과 협력사는 향후 사업장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재현 지회장은 "현대백화점에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이곳의 사례가 향후 백화점 업계에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지회, 산재예방유공자 표창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지회장 최은영, 사무국장 이인상)가 협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산재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의 산재감소와 산업안전발전에 기여한 안전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로, 김창현 하이트진로 과장 등 3명이 영예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인상 사무국장은 "안전문화가 지역 사업장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산재예방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안전관련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적극 협력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지회장 오세동)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용인지부(지부장 이선미)가 지난 8월 8일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한 양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동 지회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지회, 안전보건협력사업 간담회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지회장 정현찬)가 안전보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노총, 강원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감독관, 협회 지원사업운영자 및 관내 사업장 안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원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보건협력사업의 민간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보건지원사업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강원지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해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내 안전모 갖기 운동’ 음식 배달업종으로 확산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지난 7월 27일 구미고용센터에서 ‘음식업 내 안전모 전수식 및 안전존전 실천 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음식업종 사업주와 배달근로자를 비롯해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지회장 류창하),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기숙 지청장은 “오토바이 배달의 경우 ‘앗차’하는 순간 큰 사고가 나서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면서 “안전모 착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향후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을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지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가 지난 7월 30일 안산시 신길동에 소재하는 (주)영등포특수강에서 산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피켓 홍보, 홍보용 리플렛 배포, 사진 전시 등을 통해 근로자 및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자리였다. 안산지회의 한 관계자는 “산재예방에 대한 심각성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